

성실한 신앙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일행이 여행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렀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 들었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시중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타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 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 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누가10:36~42)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원래 성실한 것이지 성실치 못한 신앙이 어디 있겠는가고 반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를 보거나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신앙을 앞세우고 불성실한 일을 저지르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말을 영어로 Sincerity 또는 Integrity라고 하며 이 말은 진실하다, 또는 인간이 통합적인 인격을 가졌다.

언행이 일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본래적이라는 말, Authenticity라는 말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라면 우선 언행이 일치되어야 하며 거짓이 없고 본래적인 자아를 그대로 실생활에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컨대 자기 양심대로 말을 하고 그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을 성실한 사람, 인격적인 통합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러한 성실성을 지키면서 살아나가기가 대단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소신대로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현대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을 속이거나 남을 속여서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기 쉽단 말입니다. 현대의 기술 문명과 경제 발전은 인간 사회에 행복을 가져다 주고는 있지만 과거의 전통 사회, 즉 농경시대가 가졌던 그러한 순수성이나 성실성은 잃어 버리게 했습니다. 소위 인간 소외 현상이라는 것이 현대 산업사회에서 한층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래성이 상실되어지고 본래적이지 아닌 것들이 인간의 양심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묵게 된 예수님께 언니되는 마르다는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온갖 준비하는 일에 눈코 뜰새 없이 부엌으로부터 안방을 드나들면서 바빠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이런 일에 아랑곳 없다는 듯이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만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언니 마르다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손가락 하나 꼼짝 안하면서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나 주고받고 있으니 참 밧심이 좋은 아이라고 속으로 증얼거렸습니다. 점점 일이 바빠지자 마르다는 동생에 대한 못마땅한 생각이 더욱 커져서 하는 수 없

이 손님되는 예수에게 실례인 줄 알면서도 불평을 솔직히 털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처럼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위해서 바빠 움직이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주님하고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내 동생을 시켜서 저의 일을 좀 도와주라고 해 주십시오.」 이 말에 예수께서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위하여 분주하게 수선을 떨지만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좋은 것을 택하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했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대단히 평범한 진리와 그리고 인간 관계의 가장 본래적인 진리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남의 집에 방문한 손님에 대해서 그에게 제일가는 대접은 무슨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준비해 주는 것보다 정중하게 대접하면서 진실한 얘기를 주고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찾아온 손님을 방에 혼자 앉혀 놓고 형제가 다 부엌에 가서 일한다면 여기서 더 실례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평범한 상식이요 에티켓이라고 하겠습니까. 찾아온 손님을 무리하게 방에 혼자 앉아 있게 한다면 또 음식을 대접하면서도 서로 주고 받는 이야기가 없다면 그것은 실례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차 한 잔을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먹는 일 자체보다 이러한 애찬을 통해서 서로 주고 받는 대화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추한 장면이 있다면,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음식점에서 가끔 기쁜 광경을 보는데 이것은 애찬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본래적인 인간 관계는 함께 먹고 마시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어떤 말과 대화로 상징하느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나누는 것이 서로의 기쁨이나 슬픔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잘못된 대화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본래적인

인간 관계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요즘 흔히 인간 소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소외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사람이 본래적인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인간화라는 말로 바꾸어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본래적인 자아를 잃게 되는 때는 남과의 관계에서 짜증을 낼 때,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지 못할 때, 남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또 남들은 편안히 사는데 나만이 고생한다고 느낄 때, 내가 할 일이 아닌 데도 하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 한 때 짜증을 냅니다. 짜증은 인간 소외의 첫 징조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이 제품을 만드는데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이지마는 마음은 다른 데에, 다시 말하면 그가 지금 하는 일은 단지 임금을 받기 위해 할 수 없이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부조리를 느끼고 허무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본래적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소위 타유화(他有化), 즉 내가 남의 것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물질이나 기계나 권력에 맡겨버리고 자신의 양심이나 창조적인 능력을 포기해버리는 수가 많습시다.

일찌기 인간의 소외 문제를 철학적 문제로 다룬 사람이 독일의 헤겔과 마르크스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신을 지키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헤겔은 절대정신에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절대정신이란 것이 바로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마르크스는 인간이 계급투쟁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 무산계급의 유토피아를 지상에 건설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이런 인간의 비인간화, 소외 현상을 성서에서 찾아 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마르다는 자기 본래의 일, 즉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손님 접대를 위해 일하던 중에 자기 동생이 일을 거들어 주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만을 하고 있어서 자신의 본래성을 상실하고 짜증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때 마리아라는 자기 동생만 없었더라면 그녀는 짜증은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동생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케 되었을 때 마르다는 자기 소외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이유는 인간 공동체에는 거의 예외없이 언제나 바리새인과 같은 독선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운동에든 가롯 유다 같은 배신자가 있고 또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도 마리아나 마르다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행동하는 실천적인 사람들이 자기 일에 열중하다가도 자기 집단의 사람들이 현실적인 일을 제쳐놓고 이상을 말하고 이론을 따지는 것을 대하면 인간적인 갈등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상적인 사람들을, 현실을 모르고 꿈 같은 이야기만 한다고 냉소하거나 도외시키고 때로는 고발까지 하는 것입니다.

근년에 이르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회지도자들 사이에는 이런 운동에 찬동하여 가담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이러한 인권 운동을 이해하면서도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고, 이들 간에는 미묘한 인간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미묘한 인간 관계에서 언제나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본래적인 자아를 끝까지 지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사람들과의 인간적 관계에서 자신을 소외시켜 버리고 냉소적으로 자신의 본래성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전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의 통합성이라든지 성도의 사귄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집단에든

또 한 교회 안에서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실성을 잃어 버렸을때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은혜스러웠던 시대가 바로 사도행전 4장에서 보는 성도들의 공동생활 시대였습니다.

이 공동생활에서는 성도가 가진 재산을 전부 내놓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며 같이 즐기고 함께 기도위하는 공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상적인 공동 생활 속에서도 인간의 소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바나바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전부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내놓고 공유공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와 공모를 하여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놓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소유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아나니아야,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 관 돈의 일부를 빼돌렸느냐? 땅을 팔기 전이나 그 후에도 그것은 당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찌자고 그런 거짓말을 할 생각을 했는가? 당신은 인간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숨지고 말았고 얼마 후에는 아내 삽비라도 똑같은 고발을 받고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 때문에 숨지고 맙니다.

이 에피소우드는 성실성을 잃은 신앙 생활의 말로를 그대로 그려낸 것입니다. 그들은 이중 장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도들의 눈을 속여 보자는 속임수를 썼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이중 장부를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기업체나 회사에서 세금 포탈을 하기 위

해 이중 장부를 해가지고 들통나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에서로 이런 이중 생활, 하나님께도 잘 보이고 사람의 환심도 사 보려는 이중 장부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성실치 못한 신앙을 갖고 이중적인 인격 분열의 생활,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실치 못한 정치, 성실치 못한 경제, 성실치 못한 종교, 성실치 못한 교육이 모두 인간의 본래적인 양심을 속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사람으로 하여금 이중 성격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정치 지도자나 문화,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이 성실이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민족의 앞날을 밝혀줄 성실한 경륜인가를 보여 주는 일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남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속이지 않는 진실한 인간상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3·1사건 공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몇 가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사법이 국가 권력의 절대화를 인정하고 타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을 이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판사는 장황하게 법철학을 강의했지만 그는 자연법에 의한 양심이나 신앙이나 윤리 도의보다도 실정법에 의한 국가 질서의 절대화를 앞세우고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 질서가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억압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리아와같은 생활은 용서받지 못하고 마르다처럼 현실주의적인 인간, 힘이나 권력이 도의나 윤리 양심보다 앞선다는 생활관이 지배하게 됩니다.

어제 있었던 판사의 판결문은 해방 후 우리 나라 사법사 위에 하나의 전기를 이룬 것이며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두고두고 연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 나라가 어디까지나 이러한 한 판사의 법철학 다시, 말해서 19세기 유럽의 실증주의적인 법철학을 가지고 다스려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르다적인 생활관이요, 정신적인 이중 장부를 하는 현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활 태도를 절대화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성, 진실성을 말살하고 권력이나 경제력만으로 현실을 지배하는 결과가 되고 마리아가 택한 좋은 부분은 말살해 버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악인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어디에 정의가 있으며 어디에 화평이 있는가? 어디에 통일을 위한 경륜이 있으며, 어디에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겠는가? 오늘이 이 나라의 난국을 이기는 길은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조용하게 조그만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실함을 찾아서 우리의 본래적인 양심의 생활을 지켜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의 길을 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성실한 믿음을 어떻게 말했는가 살펴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친절과 선, 진실과 온유, 그리고 절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실망하거나 체념해서는 안됩니다. 끝까지 성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